

전북도, 전국 첫 우분연료화 실증특례 2년 연장

익산·정읍·김제·완주·부안 일 810톤 규모 생산 시설 확충 수질개선·탄소감축 '두 마리 토끼'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우분(소동)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사업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실증 유효기간이 기존 2026년 6월 2일에서 2028년 6월 2일까지 2년 연장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도청과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이 컨소시엄을 꾸려 주도하고 있다. 우분을 50% 이상 사용하고, 여기에 톱밥과 왕겨 등 보조 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핵심.

이번 특례 연장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련 법령이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도는 연장된 기간 동안 흑단박, 페버섯배지 등 다양한 보조 원료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추가로 쌓아 품질 안정성을 검증하고 규제 발전

구분	시군	시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처리량	주요추진사항	비고
계	5개소		1,988	810			
전북 (단위)	정읍시	정읍시	24~28	446	180	기본 및 실시설계(24.6~26.12) 공사 착공(26.12) 공사 준공(28)	계속
	김제시	전주김제완주축협	25~28	409	170	기본 및 실시설계(25.1~26.10) 공사 착공(26.11) 공사 준공(28)	계속
	완주군	전주김제완주축협	25~29	318	120	기본 및 실시설계(25.1~26.10) 공사 착공(26.11) 공사 준공(29)	계속
	익산시	익산군산축협	26~29	459	200	기본 및 실시설계(26.5~27.8) 공사 착공(27.9) 공사 준공(29)	신규
	부안군	부안군	27~30	356	140	신규사업 반영후진(26) 기본 및 실시설계(27.1~28.8) 공사 착공(28.9) 공사 준공(30)	예정

※ 전주·군산의 경우 소 사육농가가 적어 현행 퇴비화로 처리가능(연주 12농가, 군산 202)

우분 고체연료화사업 추진상황 <사진=전북도>

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김제자원순환센터에 하루 16톤 규모의 소규모 생산 시설을 선제적으로 갖춰, 지난 실증 기간 동안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품질과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현행 법적 기준을 웃도는 고품질 연료를 생산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6월 남동발전 여수발

안을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도는 이번 연장을 발판 삼아 익산·정읍·김제시와 완주·부안군 등 도내 5개소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본격 조성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확충이 마무리되면 도내에서만 하루 81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가 생산된다.

이에 따라 농경지에 뿌리는 퇴비가 줄어 하천 부영양화의 주범인 총인(T-P)을 하루 267kg 덜어내는 등 새만금 수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고체연료로 석탄을 대체해 연간 약 32만 3,00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연장 기간에 다양한 보조 원료를 추가로 발굴해 연료 품질의 안정성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며 "전국 최초의 '우분 고체연료화'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새만금 수질 개선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견인하는 선도 지방정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자료사진>

전북도, 경력보유여성 창업 지원 확대

여성새일센터 중심 맞춤형 지원 AI·디지털 창업교육 과정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여성새일센터 여성새일센터 3곳에는 창업전담인력을 배치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준비, 예비창업, 사업화,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창업장 재진입 지원에 속도를 낸다.

도는 도내 약 2만5천명의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경력보유여성은 혼인·임신·출산·육아, 가족 돌봄, 근로조건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으로 유연한 일자리와 창업 수요가 증가, 도는 도내 9개 여성

새일센터를 통해 지역 맞춤형 창업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주요 과정은 'AI 콘텐츠마케팅 창업', '피지컬 AI&드론 코딩강사 양성과정' 등 AI·디지털 기반 유망직종 분야와 전북의 지역 특색을 살린 '쌀·전통주' 활용 식품 창업 과정

등 총 9개 과정이다.

특히 전북광역·전주·완주 여성새일센터 3곳에는 창업전담인력을 배치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준비, 예비창업, 사업화,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창업장 재진입 지원에 속도를 낸다.

도는 도내 약 2만5천명의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경력보유여성은 혼인·임신·출산·육아, 가족 돌봄, 근로조건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으로 유연한 일자리와 창업 수요가 증가, 도는 도내 9개 여성

새일센터를 통해 지역 맞춤형 창업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주요 과정은 'AI 콘텐츠마케팅 창업', '피지컬 AI&드론 코딩강사 양성과정' 등 AI·디지털 기반 유망직종 분야와 전북의 지역 특색을 살린 '쌀·전통주' 활용 식품 창업 과정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자 인터뷰

1. 어떤 자세로 도정에 임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약속을 드렸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도청의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기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그 목소리가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의 속도와 책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전북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민주당, 시군과 도민을 하나로 연결해 전북의 기회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도민께서 "도정이 달라졌다", "내 삶에 변화가 생겼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2.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실 생각입니까?

선거는 경쟁이지만, 도정은 통합이어야 합니다. 저를 지지해주신 분도, 다른 선택을 하신 분도 모두 전북의 미래를 걱정하는 같은 도민입니다. 이제 저는 특정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172만 전북특별자치도민 모두의 도지사입니다. 도민의 삶을 앞에 두고 편을 가르거나, 지역을 나누거나, 생각이 다르다고 배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통합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정의 태도와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군과 진영, 세대와 계층을 넘어 도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필요한 일은 누구와도 손잡겠습니다. 버려지는 사람도, 뒤쳐지는 지역도 없도록 전북의 성장과 기회가 모든 도민에게 돌아가는 도정을 만들겠습니다.

3. 가장 먼저 추진할 1호 과제는 무엇입니까?

전북성장공사를 중심으로 전북형 스타기업을 키우는 일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북의 기업들이 AI, 미래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농생명 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핵심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기술, 인력, 판로를 묶어 지원하겠습니다.

현대차 9조 투자, 피지컬 AI 1조 지원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전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전북에 다시없는 기회와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가능성을 산업으로 만들고, 산업을 일자리로 만들고, 일자리를 도민의 삶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도정 초반부터 실행 체계를 세우고, 도지사가 직접 기업과 현장을 챙기겠습니다.

4. 새만금은 이원택 도정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를 바꿀 가장 큰 전략 무대입니다.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전북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공간입니다.



<사진=이원택당선인측>

다. RE100 산단, 재생에너지, AI반도체, 피지컬 AI, 미래차, 데이터센터가 연결되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로 키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향입니다. 새만금 SOC를 조속히 완성하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전북의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만금을 전북의 일부가 아니라 전북 대도약의 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5.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청년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와 기회입니다. 좋은 일자리, 도전할 수 있는 산업,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는 생태계가 있어야 청년이 전북에 남습니다. 저는 전북성장공사, 성장펀드,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청년이 일하고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 청년 정책을 단순한 지원금 중심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창업, 일자리까지 삶 전체를 묶어야 합니다. 전북을 떠나야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전북에서 도전해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6. 민생과 골목경제 대책은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입니까?

도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도민의 삶입니다. 물가, 임대료, 금융 부담, 인건비, 소비 위축으로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전북 경제의 온기가 도민의 삶 속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전북페이, 정책자금, 이차보전, 온라인 판로, 공동물류, 공공배달, 상권별 맞춤형 지원을 촘촘히 추진하겠습니다. 큰 산업을 키우는 일과 골목경제를 살리는 일은 따로가 아닙니다. 미래산업의 성장과 민생경제의 회복이 함께 가는 도정을 만들겠습니다.

7. 농업·농촌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북은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농업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산업으로만 보지 않고, 식품, 바이오, 푸드테크, 가공, 유통, 수

출과 연결되는 미래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농민의 소득이 안정되고, 청년이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국회 농해수위에서 농업과 농촌의 현장을 오래 챙겨왔습니다. 쌀값, 재해, 유통, 농지, 농민 소득 문제를 누구보다 철박하게 보았습니다. 도지사가 되어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면서 농생명 산업의 부가가치를 키우는 전북형 농정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8. '도민주권 도정'을 강조해 오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도민주권은 구호가 아니라 도정 운영 방식의 변화입니다. 도민이 선거 때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도민의 목소리가 도청 문턱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도민참여위원회, 현장 소통, 정책 제안 플랫폼, 지역별 속의 과정을 제도와 하였습니다. 도청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도민 삶의 현장에서 출발하는 행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전북도민이 진정한 전북의 주인이라는 것을 도정 운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9. 민주당 소속 도지사로서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전북은 지금 중앙과 강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전북의 미래전략을 정확히 맞물리게 해야 합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의 도지사라는 강점을 살려 예산, 제도, 인허가, 국가 사업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선택하고, 정부와 협상하고, 필요하다면 전북의 몫을 위해 싸우는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전북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민주당, 전북의 요구를 국가정책으로 만드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힘으로 도민께 성과를 돌려드리겠습니다.

10. 임기 4년 뒤 어떤 도지사로서 기억되고 싶습니까?

전북을 말로만 사랑한 도지사가 아니라, 전북의 방향을 바꾼 도지사로서 기억되고 싶습니다. 도민께서 "이원택 도정 이후 전북이 달라졌다", "우리 아이가 전북에서 살아가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보다 큰 평가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거창한 구호보다 도민의 삶 속 변화로 평가받겠습니다.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안정된 삶을, 어르신에게는 존엄한 노후를 드리는 도정을 만들겠습니다. 버려지는 사람도, 뒤쳐지는 지역도 없는 전북을 위해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이원택 당선인 프로필

김제시문초등학교(1981) 이리중학교(1984) 남성고등학교 졸업(1987) 전북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1998) 제21대 국회의원 (김제시부안군) 제22대 국회의원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서울=김영목기자

남원시 공고 제2026-1317호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 분묘 개장 공고 (1차)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5일

남 원 시 장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월락동 산47번지 외 3곳
나. 분묘기수 : 9기

소재지	지번	지목	기수
소 계	4필지		9기
남원시 월락동	산47	임야	3기
	산52	임야	1기
	산54	임야	3기
	산55	임야	2기

2. 개장사유 :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에 따른 편입 분묘 개장

3. 공고기간 : 신문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가. 제1차 공고 : 2026년 6월 5일(금) ~ 7월 15일(수) (40일간)
나. 제2차 공고 : 2026년 7월 16일(목) ~ 9월 4일(금) (50일간)
※ 2차 공고는 1차 공고일(공고 기간 40일)이 지난 후 재공고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매장장소 : 남원시 솔터길 40-36(광치동 690번지) 남원시 승화원(납골당)
나. 안치기간 : 납골 후 5년

6. 문의사항 및 연고자 신고

가. 사업시행자 : 남원시청 교육체육과(보상담당자 ☎ 063-620-5610)

7. 기 타

○ 본 공고 이후 개장 전까지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사업부지 내 동일 번지에서 누락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같습니다.

제13대 전주시의회 의원 36명 확정

최연소 당선인 신유정 내달 1일 13대 의회 개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13대 전주시의회 의원 당선인 36명이 확정됐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역구 의원 32명 △각 정당 비례대표 의원 4명 등 총 36명이 당선됐으며 이 중 △초임 의원 당선자 17명 △현역 의원은 19명이라고 밝혔다. 정당별 당선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26명(비례대표 김수민(38), 정승인(44), 유시선(56) 포함) △조국혁신당 5명(비례대표 이수진(35) 포함) △무소속 4명 △진보당 1명 등으로 확인됐다. 당선자 연령은 △20대 2명 △30대 11명 △40대 6명 △50대 9명 △60대 이상 8명 등이며, 성별로는 △남성 24명 △여성 12명이다. 당선자들은 가선거구와 라선거구, 마선거구 김윤철, 최명철, 김현덕 등이 의원 타이틀을 거머쥘다. 마선거구 김현덕 당선인은 70세로 최연장자 그리고 최연소 의원에는 신유정 당선인이 선출됐다. 지역구 별 당선자(노송, 인후1·2·3)는 최용철(민주당, 3선, 50), 김윤철(민주당, 5선, 69), 채민석(조국, 3선, 30), 나선거구(중앙, 풍남, 완산, 중화산1·2)는 장병익(민주당, 3선, 37), 조우영(조국, 3선, 64), 이동문(민주당, 5선, 50) 후보.

다선거구(동서학, 서서학, 평화1·2)는 은영표(민주당, 3선, 60), 최지은(민주당, 3선, 48), 경현철(조국, 3선, 49) 후보. 차선거구(우아1·2동, 호성동) 신동이(민주당, 3선, 39), 윤해정(민주당, 3선, 50) 후보. 카선거구(송천1·3동) 김인철(민주당, 3선, 37), 최한별(진보, 3선, 34), 최명권(민주당, 3선, 55), 타선거구(혁신동)는 신인철(민주당, 3선, 35), 신유정(민주당, 3선, 26) 후보 등이 전주시의회 제13대 의원으로 활동에 들어선다. 당선자들은 내달 1일부터 3일 제13대 전주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시민 위한 4년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김영태 기자



전주연화정도서관 야간 연장 개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는 연화정과 벽진폭포 일원에서 화려한 빛의 하모니를 담은 프로젝션 맵핑 야간 미디어콘텐츠 '연화정에 내린 별들의 이야기'가 상영돼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도 제공한다. 단, 연화정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하계기간 평일 운영시간이 기존 오후 7시까지에서 2시간 연장된 오후 9시까지로 확대 운영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장 운영은 매년 여름철 방문객 증가와 야간 이용 수요를 반영해 추진되는 것으로 덕진공원 연못에 연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시민과 관광객들이 전주의 정체성과 한국적 아름다움을 담은 한옥도서관에서 다양한 전통문화 관련 도서와 함께 휴식을 취하며 덕진공원의 정취를 보다 여유롭게 즐기며 도서관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현황

전북경찰청 155건 246명 단속 송치 7명, 수사 중 201명

전북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월 3일부터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3월 18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했다. 그 결과로 선거일까지 선거사범 155건 246명을 수사한 결과 7명을 송치하고, 201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 가짜뉴스 유포 등 허색선전 117명(47.5%), 금품수수 48명(19.5%),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40명(16.3%), 공무원 선거관련 16명(6.5%)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은 오늘부터 4개월 간(6.4~10.2)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모든 선거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12. 3) 전에 종결한다.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조직 제7조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경찰 등을 활용해 검찰과 상호의 견 제시·교환하여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또 당선 담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계(명)	※ 선거범죄 유형별 단속 인원 (단위: 명 / ■: 5대 선거범죄 / □: 3대 선거범죄)								
	허색 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관련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사전 선거 운동	인쇄물 배부	현수막 벽보	기타
246	117	48	16	4	9	2	10	40	
비율	47.5	19.5	6.5	1.6	3.6	0.8	4	16.3	

“전주책페에 전국 독립출판인 몰린다!”

오는 7월 17일·18일 전주형 독립출판 북페어 개최 '서포' 의미와 가치 조명

전국 독립출판인 및 독자들이 책의 도시 전주에 몰려온다. 전주시는 '제4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이하 전주책페)'를 오는 7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전주남부시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주책페'는 전국 방방곡곡 책을 팔던 조선시대 서적중개상 '책페(冊販)'에서 이름이 붙여졌으며 전주 고유한 역사성에 전국 독립출판문화를 결합한 북페어 형식으로 운영된다. 오는 전주책페는 '전국 서포를 품고 책페가 온다' 주제로 '서포'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 '서포(書舖)'는 서점 옛말이며 책 판매 뿐 아니라 출판을 통해 지역 존재를 드높인 책문화 거점을 의미한다. 특히 건물 2층 문화공간장 작당에서 진행되는 전주책페는 전국 독립출판 창작자와 출판사, 동네책방 등 501팀이 신청해 전년 대비 약 57% 늘어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94팀이 최종 참가를 확정 지었다. 또 건물 1층 로컬공간장 모임장에서는 서점지기와 시민들이 책을 매개로 자유롭고 교류할 수 있는 '인생서점 생애주기 체험프로그램' 등 독자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점 북페어'가 함께 진행된다. 시는 올해 전주책페를 모토로 북페어 속에 북페어를 품은 새로운 형식으로 전국 책페 부스와 지역서점 부스를 전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당선 담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는 '제4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를 오는 7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전주남부시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전주시>

자아 출판사, 동네책방 등 501팀이 신청해 전년 대비 약 57% 늘어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94팀이 최종 참가를 확정 지었다. 또 건물 1층 로컬공간장 모임장에서는 서점지기와 시민들이 책을 매개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인생서점 생애주기 체험프로그램' 등 독자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점 북페어'가 함께 진행된다. 시는 올해 전주책페를 모토로 북페어 속에 북페어를 품은 새로운 형식으로 전국 책페 부스와 지역서점 부스를 전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당선 담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로 오가며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책 박람회 선보일 계획이다. 여기에 전주 옛 서점 문화를 재해석한 '서포의 방'도 운영된다. 그러면서 시는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으로 △김경현 웹엔지니어블루 대표의 '독립출판 프리랜서의 어떤 하루' △김주은 심다 대표의 '책방 10년, 졸업식 그 후' △이여로 작가의 '북페어를 탈출하는 방법: 판매 너머의 1인 유통을 상상하다' △육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책이 머물고 떠나던 곳, 서포의 발자취' △호재 북셀러 대표·최창근 한가네 서점 대표의 '대구와 전주, 두 현책방 주인의 말' 등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전주책페 참여팀을 130팀으로 대폭 확대해 한층 더 풍성한 북페어로 도전을 시도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독자와 관람객 모두가 하나의 북페어로 두 개의 북페어를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립국악단 제248회 '부활Ⅳ' 정기연주회

다채로운 국악관현악 무대 예정 두 번째 곡은 이지영 작곡의 소고춤을 위한 무용환상곡 '다담'이 위촉 초연된다. 이 곡은 전통 소고춤과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또 정기연주회에서는 김수현 작곡 '한 여름 밤의 산책을 위한 오늘의 노래'가 무대에 오른다. 편곡 초연곡 '단야', 위촉 초연곡 '청산유람', '동네 한 바퀴' 등을 통해 우리 정서를 담은 다채로운 노래를 들려준다. 이지영 전북대학교 교수가 협연자로 나서 서공철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심수(心樹)'를 선보인다. 공연 입장권은 일반 5000원, 학생·중·고 및 단체 3000원이며 예매는 나무 킷쳐 누리집을 활용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서 아중지구대 학교주변 합동점검

학생 대상 강력 범죄 대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전주덕진경찰서(서장 조영일) 아중지구대(대장 엄두석)는 학생 대상 강력 범죄 대비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과 함께 학교 주변 및 통학로 취약요소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최근 통학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등·하곳길과 아중지하도 일대의 치안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점검은 관내 중앙여고, 온고음중, 인봉초등학교 일대 통학로를 직접도보

로 살피며 학생들의 주요 이동 동선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또 현장에서 만난 지역 주민들로부터 실질적인 불안 요소를 청취하는 한편, 향후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노후 방범 시설물 교체 및 CCTV 추가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 환경개선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엄두석 아중지구대장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범죄예방진단팀의 전문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등·하곳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공동주택 화재 시 '살피서 대피' 중요성 강조 산 방지를 위해 현관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한다. 반면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칸막이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문틈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은 뒤 119에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웃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집 안으로 연기가 들어오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연기 유입이 없다면 창문을 닫고 집 안에 머물며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대로 연기가 유입될 경우에는 복도 상태를 확인한 뒤 대피가 가능한 하면 지상층으로 이동하고,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찬 경우에는 집 안 대피 공간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전주완산소방서는 공동주택 관계자와 입주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시 올바른 피난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매체와 공동주택 주민 플랫폼 등을 활용해 '살피서 대피'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3.5% 상승

교통비·생활물가, 상승 견인... "부담 완화 대책 마련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며 서민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류비 상승에 따른 교통비 증가와 생활물가 오름세가 두드러지면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지방데이터청 전주사무소가 2일 발표한 '2026년 5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소

비물가지수는 120.50(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3%,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 상승했다.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4월 3.0%에서 5월 3.5%로 0.5%포인트 확대됐다. 올해 들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는 모습이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는 더욱 큰 폭으로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4.3%, 전월 대비 0.3%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특히 식품을 제외한 생활필수품 물가는 전년보다 5.5% 상승해 가계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교통 부문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교통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9%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휘발유가 23.7%, 경유 34.2%, 등유 23.0% 각각 상승했다.

주택·수도·전기·연료 부문도 2.5% 상승했으며, 음식·숙박은 2.4%, 교육은 3.8%, 오락·문화는 4.1% 각각 올랐다.

보험서비스는 13.4%, 공동주택관리비는 5.2%, 미용료는 4.1% 상승하는 등 서비스 분야의 물가 오름세도 이어졌다.

반면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0.8% 하락했다.

신선채소 가격이 5.1% 하락했고 양파와 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전체

신선식품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쌀은 17.1%, 돼지고기 5.4%, 국산 쇠고기 6.4% 상승해 주요 먹거리 가격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생활물가 상승세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농산물 가격보다 교통비와 서비스 비용 증가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체감물가 관리가 향후 정책 과제라 떠오를 전망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조사료 유통 활성화 실무자회의

수급 현황 점검

이 날 조사료 유통 활성화 관련 실무자 회의에서는 △동계조사료 작황 전망 △동계조사료 수급 동향 △관내 조사료 유통공급 방안 △축협 조사료 유통 연간 목표물량 달성을 위한 의견수렴 △기타 조사료 유통사업 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 등에 대해 각 축협별로 현황 공유 및 통 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 지역 동계조사료 재배면적은 지난해 26,030ha보다 675ha 증가한 26,705ha로 확대됐다.

현재 동계조사료 수확률은 85% 수준으로, 적기 수확을 위해 바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잦은 강우와 벚жит 수 거 지연, 가을철 과중 차질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생산량은 전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훈 본부장은 "이상기후와 고 환율·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 사료가 격이 상승하고 있어 관내 축산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전북지역은 조사료 대표 생산단지 로, 축산 농가들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조사료 유통화 활성화 방안 논의 등 축산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연료 특성 분석... 품질 관리 기준 마련

유연탄 대체 효과... 에너지 자원화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지난 4월 부터 연소 뒤 남는 연소재를 비료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후속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가축분뇨는 원료 특성상 발열량과 품질 변화 폭이 커 안정적으로 연료를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저장기간과 농산부산물 혼합비율에 따른 연료 특성을 분석해 품질 관리 기준 마련 연구

를 추진해 왔다.

연구 결과, 축사 안에서 약 3개월 저장한 소 분뇨(우분)는 연료화 공정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부산물 혼합비율은 최대 40%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는 농산부산물 등 보조원료 혼합 허용과 혼합 여부에 따른 발열량 기준 차등 적용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반영됐다.

또 국립축산과학원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발전사와 협력해 총 635톤 규모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시범 연소

를 추진하며 실제 발전 연료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연소 안정성 등을 점검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4월부터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연소 뒤 남는 연소재의 처리 부담을 줄이고, 연소재 내 인(P) 등 유해 성분을 회수해 비료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소재 특성 분석, 유해 성분 회수 기술 개발, 비료화 및 작물 적용성 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퇴비로 처리되는

가축분뇨 100만 톤을 고체연료로 전환하면 연간 약 5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506억 원 규모의 유연탄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축산분야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원화 측면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길원 스마트축산환경과장은 "가축분뇨를 단순 처리 대상이 아닌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고체연료 활용 확대와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공단-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고령사회 대응 논의

노후소득보장 및 서비스 확대 정책 협력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4일 국민연금 본부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과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연금제도 발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방문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인구전

락 관점에서 범정부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공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김성주 이사장과 김진오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국민이 신뢰하는 연금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과 공단의 복지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은 국민

의 가장 기본적인 공적연금 제도인 만큼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공단이 안정적인 기금운용과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였고, 올해에는 초고령 사회에서 당면한 치매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 치매 공공신탁 시

범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국민연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만들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강화, 노후 준비 지원 서비스 확대 등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농식품부, 양파 수급안정 대책 추진

수매비축 82%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일 공급량이 증가한 중만생종 양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에 따르면, 중만생종 양파 재배면적은 감소(14,148ha, 평년비 7.4%↓)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단수가 큰 폭으로 증가(7,690kg/10a, 평년비 122.2%↑)해 생산량은 평년 대비 41천톤 증가한 1088천톤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수확기 흉수출하 방지 및 단경기 수급불안에 대비해 수매비축을 평년 대비 82% 확대한 20천톤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주산지 농협 등이 최대한 수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주산지 지방정부 등이 협력해 일부 공급과잉물량을 신속히 산지 출하장지(223ha, 전체 재배면적의 1.6% 수준)하고, 양파 자조금단체 중

심으로 저품질 양파(下품)가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자제하는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파 소비촉진을 위해 기관 유튜브를 통한 양파 홍보영상 게시, 대한영양사협회 협조를 통한 공공급식 확대 기요청해 추진중에 있으며, 대형·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할인 지원(최대 40%)을 당초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까지 연장해 소비촉진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5월 대책에 포함된 수출지원

(10천톤), 출하연기(5천톤) 등 대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수급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산지 지방정부, 농협 및 생산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생산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시 수급 불안에 따른 단기 수급대책 이외 우수품종 생산지원, 재배기술 고도화, 저장기술 개선 등 국산 양파 품질 경쟁력 제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안전관리 활동

여름철 온열질환 및 안전재해 대비 캠페인 전개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과 농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365 캠페인과 연계한 농업인 안전관리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농작업은 대부분 야외에서 장시간 이뤄지고, 농번기에는 무더운 시간대에 작업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고령농·여성농 등은 온열질환과 안전사고에 더욱 취약하다.

이에 단순 홍보를 넘어 농업인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예방수칙을 생활화하는 현장 중심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온열질환 예방요원 8명을 운영해 폭염엄태 등 거점과 고령농·여성농 등을 방문하고, 홍보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휴식, 무더운 시간대 작업 자제 등 핵심 예방수칙 안내와 예방물품 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농업인 안전재해예방 컨설팅과 연계해 작업환경과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보호구 활용 등 시기별 재해예방 실천사항을 함께 홍보한다.

특히 이번 활동은 온열질환 예방요원, 농작업 안전관리자, 안전리더 등이 농업인 가까이에서 예방수칙 실천을 독려하고, 폭염·농기계 사고·근골격계 질환·진드기 매개 감염병 등 주요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는 안전365 캠페인을 현장에 확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여름철 농작업 현장은 온열질환과 안전사고에 취약한 만큼 사전 예방과 현장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365 캠페인과 현장활동을 통해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중기부 '통합회원 서비스' 시범 운영

중기부는 오는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이하 통합회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서비스는 중소벤처24 고도화 사업의 첫 단계로 중기부와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주요 정책 서비스를 하나의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창업, 연구개발(R&D), 수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이용하기 위해 기관별 누리집마다 별도 계정을 만들어 로그인을 해야 했다.

앞으로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정책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이번 통합회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중소벤처24와 신규 서비스를 일정 기간 병행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자가 자주 찾는 증명서 발급 및

지원사업 정보에 대한 검색 기능과 사용자 환경(UI·UX)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 맞춤형 서비스 기반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중기부는 이번 통합회원 체계를 기반으로 정책 및 지원사업 데이터를 연계하고, 올해 9월 인공지능 기반 지원사업 추천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는 등 이용자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통합회원 서비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계"라며, "그동안 분산돼 있던 정책 서비스를 차근차근 연결하고 정책 접근성을 개선해 기업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는 중소기업24누리집(https://www.smes.go.kr) 메인 화면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건협 전북지부 '호국보훈의 달' 전주군경묘지 보훈봉사

보훈 문화 확산 기여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는 6월 호국보훈 달 지역 내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전주 군경묘지를 방문해 보훈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봉사활동은 조국을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고, 이들의 고결한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배에 참여한 건협 전북지부 임직원들과 메디체크 어머니 봉사단원들

은 묘역 주변의 비석을 닦는 등 세심한 묘역 정화 활동을 펼치며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들의 넋을 위로하고 편안함을 안식을 기원했다.

건협 전북지부 임진영 본부장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그분들의 고귀한 뜻을 영원히 잊지 않고 이어 받아,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공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협 전북지부는 도민의 건강한



<사진=건협 전북지부>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 3개 교원단체 '현장 중심 교육' 촉구

천호성 당선인에 약성 민원 방지 장치 마련 등 현안 해결 요구

전북특별자치도 내 3개 교원단체가 천호성 신인 전북교육감 당선인에게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일제히 촉구했다. 전북교총과 전북교사노조, 전교조 전북지부는 4일 각각 논평을 내고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 행정을

요구했다. 3개 단체는 공동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무분별한 이동학대 신고와 약성 민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내 현장 교사 참여 보장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새 교육감 체제가 전북교육의 안정과 회복을 이끄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집중 지원과 더불어

교육지원청 중심의 학교 업무 재구조화에 대한 실행 계획을 조기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현장 교사단체와 정례적인 대화를 통해 현장 밀착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학생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학생인권조례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실질적인 교육 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오도영 지부장은 "선거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한 약속을 선

거우 구호가 아닌 절박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파기된 단체협약을 인정해 보충 교섭을 추진하는 한편,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학생 한 사람의 성장과 삶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 당선인은 조만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출범하고 세부적인 교육 행정 로드맵 구축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3개 교원단체의 현장 중심 정책 요구를 새 교육감 체제에서 어떻게 풀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성민 기자



<사진=천호성 캠프>

천호성 당선인, 첫 일정 순직교육자추모탑 참배

당선증 교부...행보 본격화
황실장 등 캠프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참배 이후 천 당선인은 선거캠프를 방문해 문규현 신부와 차상철 교육연대 상임대표, 황민주 원로,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 등을 만나 선거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교육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오후 4시 전북선관위에서 당선증을 교부받은 천 당선인은 곧바로 선거캠프 해단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당선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성민 기자

익산시 '꿈의 행차단' 참여 아동·청소년 모집

공연 창작 프로그램 진행 오는 15일까지 신청

백제왕도 익산의 이야기가 아동·청소년들의 노래와 몸짓으로 다시 태어난다. 익산시는 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꿈의 행차단: 왕도(王都)의 노래와 몸짓'에 참여할 아동·청소년을 오는 15일

까지 모집한다. '꿈의 행차단'은 백제왕도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오케스트라·풍물·무용·합창이 어우러지는 공연을 만드는 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익산 지역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으로 선발 인원은 오케스트라 10명, 풍물·무용 10명, 합창 10명 등 총 30명이다. 신청은 익산

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은 오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오케스트라는 매주 월요일, 풍물·무용·합창은 매주 목요일 운영되며, 매주 토요일에는 전 분야 참여자가 함께하는 통합 창작 활동 '창작데이'가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정기교육과 함께 지역학 특강, 작곡 캠프, 공연 관람, 공동작업

회 등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창작데이를 통해 분야 간 경계를 넘어 협업과 공동창작을 경험하며 예술적 역량과 창의성을 키우게 된다. 완성된 창작 결과물은 공연으로 제작돼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문화관광재단 문화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13일 개막

조여름 청량함을 담은 힐링 축제 '2026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모악산 금산사 잔디광장 일원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페스티벌은 1일차(13일) 케이윌과 가비엔제이, 2일차(14일) 브브걸과 제니스 등 화려한 아티스트 라인업으로 일찌감치 기대를 모았다. 시는 이에 더해 공연 무대 밖에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추가로 공개하며 흥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제=윤봉기 기자

전북현대 N팀, 홈경기 개최

전북현대모터스FC가 K리그1 휴식기를 맞아 전북현대의 육성 시스템의 중심인 N팀 홈경기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경기는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는 장중한 추모 행사로 경건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팬들에게 다채로운 '팬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을 배치해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스토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홈경기는 기존 홈경기장이던 완주군공설운동장을 벗어나 '전주월

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특별하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으로 인한 K리그1 휴식기를 맞아, 전북N팀 선수들에게는 전주성의 훌륭한 잔디와 시설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팬들에게는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전격 추진됐다. 선수들의 더 나은 경기 환경과 팬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경기 시간 역시 기존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로 변경했다. 평소 무료로 개방되던 전북N팀 홈

경기과 달리 이번 경기는 5,000원에서 15,000원 가격 구성의 유료 티켓으로 진행된다. 이 티켓 수익금 전액은 전북동부보훈지청에 기부돼 호국보훈의 달의 취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 전북N팀은 현재 K3리그 14위(1승 4무 8패)에 위치하고 있지만, 올 시즌 경기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김영환, 최진웅, 이상명 등 K리그2 무대를 경험한 베테랑 및 알짜배기 선수들이 다수 합류하며 스쿼드의 무게감을 더했다. /장정철 기자

군산어린이공연장 20일 특별한 미술공연 선보

군산어린이공연장이 오는 20일 무대를 환상과 마법의 공간으로 바꾸는 특별한 미술공연 '마법선물상자와 책 읽는 마법사'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마법선물상자'와 '책 읽는 마법사' 두 가지 테마로 구성된 어린이와 가족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마술의 세계와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마법선물상자'는 마술, 버블쇼, 별루아트, 그림자극, 레이저쇼 등 오감을 자극하는 무대 연출과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를 통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체험형 콘텐트로 꾸며진다. 이어 선보이는 '책 읽는 마법사'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소룡형 매직쇼이자 독서의 즐거움을 전하는 스토리텔링 공연으로 책 읽기의 재미와 소중함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현자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이번 공연이 어린이들에게 신비로운 마술의 세계를 경험하며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전국 중·고 배구대회' 익산서 열려

익산시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익산실내체육관과 남성고등학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익산학생교육문화관에서 '2026 한국중·고배구연맹 2차연맹전 익산 보석배 대회'가 열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중·고배구연맹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배구협회와

익산시배구협회가 주관한다. 전국 중·고등부 선수와 지도자 등 1,6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는 익산실내체육관과 남성고등학교에서 고등부 남·여 경기가 진행되며,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와 익산학생교육문화관에서는 중등부 남·여 경기가 열린다. /익산=최준호 기자

세부 경기 일정은 한국중·고배구연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경기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국의 중·고 배구 유망주들이 익산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대회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도문화관광재단, 서울국제관광전서 전북 홍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리는 '제41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전북 홍보 부스를 단독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 참가를 통해 서부내륙권 관광 진흥사업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 콘텐츠를 수도권 관광객과 국내외 관광업계 관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은 전북·충남·세종을 아우르는 광역 협력 관광사업으로, 지역의 특화 콘텐츠를 발굴·홍보하고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 경

건강한 생활 습관 5가지



손씻기



골고루 먹기



규칙적인 수면



규칙적인 운동



잘 씻기

1. 외출 후 돌아와서 10초 이상 손 씻기
2. 3가지 이상 음식을 골고루 먹기
3. 청결 유지 하기
4. 주 2회 이상 1회에 20분이상 규칙적인운동
5. 저녁 9시~10시 사이에 규칙적인 숙면

정읍시, 폭염 종합대책 가동... 특보 체계 도입 안전망 강화

정읍시가 지난 1일부터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포함한 세분화된 특보 체계를 새롭게 도입하고, 취약계층 2만 8000여 명을 전담 도우미 6900여 명이 밀착 관리하는 폭염 방어막을 구축했다.

시는 3개 반 13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태스크포스)을 꾸려 상황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2단계 특보 체계를 개편해 체감온도 35°C 이상이 이틀간 관측될 때 발령하는 폭염중대경보를 지난 1일부터 도입했다.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2만 8083명을 지키는 대책도 총출동했다. 시는 6932명의 재난도우미 비상 연락망을 자료통계(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더위를 피할 공간 마련과 물품 지원도 대폭 늘렸다. 시내 곳곳에 지정된 실내 무더위쉼터 475 곳을 개방하고 버스승강장이나 근린공원 같은 이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얼음 생수 9만 개를 둔다.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을 위한 현장 중심 안전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시행해 건설 현장 작업이나 농사일을 쉬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이학수 시장은 "자연재난 대응의 핵심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게 막는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점검과 빠른 상황 전파 체계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매일시장, 12~13일 콘서트급 야시장 축제 개최

익산 매일시장이 전통시장의 정겨움에 공연과 패션, 미식을 더한 이색 야시장으로 변신한다.

익산시는 오는 12~13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매일시장 주차장 일원에서 '2026 익산 매일 패션시장 야시장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전통시장에 공연과 패션, 미식을 더해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이는 야간형 행사로 마련됐다.

12일 개장식에는 그룹 DJ DOC의 멤버인 가수 김창열이 축하공연을 펼치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먹거리도 풍성하게 준비된다. 전통시장 대표 먹거리는 물론 케밥과 양꼬치 등 글로벌 음식을 함께 선보이며, 먹방 유튜브 쓰얌이 방문해 화제가 된 익산 대표 탕수육 맛집 메뉴와 금종제과 야시장 특별 메뉴를 비롯해 지역 인기 먹거리도 만나볼 수 있다.

행사 기간에는 최대 70%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행사장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다이어롬'으로 결제시 추가 포인트 10% 지급 혜택이 제공돼 축제를 즐기면서 알뜰한 쇼핑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야시장 축제가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야간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샘고을시장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

정읍시가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샘고을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마련했다.

환급은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일 경우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이며, 국내산 원물을 70% 이상 사용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상품권 환급 장소는 샘고을시장상인회 사무실 1층 고객센터이며, 행사 기간 중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치우는 물가가 달란 시민들의 지갑을 열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보석 산업, 글로벌 무대 도약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법' 국회 상임위 의결... 최대수혜 기대

대한민국 대표 '보석 도시' 익산의 주얼리 산업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글로벌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익산시는 국내 주얼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근거를 담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하면서 시가 추진 중인 보석 산업 고도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주얼리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는 효자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독립된 진흥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예산 지원과

중장기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들의 입법 추진과 정부의 정책 연구가 맞물려 마침내 국회 상임위에서 통합 조정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얼리 산업을 키워야 하는 책무를 명시하고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장원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국가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익산시는 이번 법안 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이미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을 비롯해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주얼리 임대공장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특화된 제조·연구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시는 향후 법률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될 경우,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한 대규모 신규 국비 사업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지정 주얼리산업 진흥단지' 유치,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보, 국제공인시험기관을 활용한 품질인증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에도 착수했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최종 통과 시 국내 주얼리 산업 역사상 최초의 독립 진흥법으로 기록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이 수십 년간 다져온 독보적인 제조 기반과 연구개발(R&D) 역량을 총동원해 정부 정책을 선점하고, 익산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K-주얼리 산업의 중심 도시로 당당히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고군산섬잇길' 조성 순항

해상 인도교로 5개 섬 연결... 걷기 관광지 도약

군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K-관광섬 육성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고군산섬잇길' 조성사업을 통해 말도·명도·방축도를 중심으로 한 해상 트레킹 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고군산군도의 주요 5개 섬(말도·보농도·명도·광대도·방축도)을 총 4개의 해상 인도교로 연결(총연장 8.64km)하는 대규모 해상 도보길 조성 사업이다. 섬과 섬을 걸어서 이동하는 독창적인 트레킹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서해권을 대표하는 걷기 관광지 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군산섬잇길'은 이용객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코

스가 구성돼 있다. 장거리 탐방객을 위한 중주 코스는 방축도에서 말도까지 이어지는 전 구간을 연결하는 트레킹 코스로 운영된다. 반면 가족형 코스는 방축도·명도·말도 등 주요 섬 구간을 중심으로 한 원정회귀형 코스로, 비교적 부담 없이 섬별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각 섬은 고유한 자연·지질·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관광 매력을 제공하는데, 방축도는 출렁다리(제4교)와 동백나무 군락지, 독립분비위 등 다양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섬이며, 명도는 구룡전망대(65m)와 오진여전망대를 중심으로 서해안의 수려한 절경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말도는 천연기념물 '말도 습곡 구조'와 천년송, 말도등대 등 지질·해양 관광자원이 집약된 섬으로 독특한 자연경관을 보여준다

/군산=지송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 후 첫 결재

335개 추진사업 점검... 민선 9기 출범 준비

이학수 정읍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후 첫 결재로 2026년 상반기 335개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시장 현안과 핵심 사업을 직접 살피며 민선 9기 출범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점검은 시장 현안과 핵심 과제를 직접 챙겨 사업 추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예산 확보 상태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완점을 빠르게 찾고, 이를 바탕으로 눈

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전체 대상 사업 가운데 333건(99.4%)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평균 진행률은 56%를 기록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남은 과제들 역시 속도를 높여 이른 시일 안에 마칠 예정이다.

상반기에 완료된 대표적인 성과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수성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이 꼽힌다. 아울러 시립도서관 무장애(배리어프리) 환경 조성, 행정전화 녹취 체계 구축, 민원 서비스 전산화(디지털화) 기반 마련, 공익직불금 확대, 귀농·귀촌 지원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식품기업 중국시장 진출 지원

수입상품박람회 참가

군산시가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에서 열린 '제6회 한국(산동) 수입상품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식품기업의 중국시장 확대와 신규 바이어 발굴에 나서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군산시는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웨이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지역 식품기업 4개사와 함께 참가해 군산 우수 식품 홍보와 중국 현지 바이어 대상 수출상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중국 내 대표 소비재 전문 전시회 가운데 하나로 식품, 뷰티, 생활용품, 유아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바이어들이 참가했다.

군산시는 총 54㎡ 규모(표준부스 6개)의 '군산시 공동관'을 운영하고 해당 씨푸드, 세정수산물, 진포산회, 영인바이오 등 지역 식품기업과 함께 군산의 대표 수산물공식품과 특산품을 집중 홍보했다.

참가기업들은 김, 꽃게장, 새우장, 첫갈류 등 군산을 대표하는 다양한 식품을 선보였으며, 시식 행사와 제품 설명, 구매 상담을 통해 현지 소비자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한국식 수산물공식품과 간편식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군산 식품의 우수한 품질과 상품성이 호평을 받았다.

또한 일부 제품은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유통망 공급 관련 문의를 받았으며, 제품 수입 방식

과 물류·유통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도 진행됐다.

그 결과 박람회 기간 참가기업들은 총 16건의 구매 상담을 진행해 약 18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일부 기업은 현지 유통업체 및 바이어와 제품 공급 및 수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는 등 향후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군산 식품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과 현지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중국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박지원 후보 선거사무실>

박지원 "김제·부안·대야·회현 성원에 감사"

이재명 정부국정기조와 전북도정 한방향성과 기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3일 밤 보궐선거에서 당선을 확정했다.

박 당선자는 당선이 확실시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김제·부안·대야·회현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선거운동 기간 함께 뛰어나주시고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 협력선거로 함께해주신 김중회 후보님께도 감사드립니다"라며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주민 여러분의 뜻도 무겁게 받들어, 부족했던 부분은 더 낮은 자세로 채우며 더 진심으로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승리는 박지원 개인 승리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성공과 민주당 원팀 승리를 바라는 주민 여러분의 뜻이 모인 결과"라며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부안·김제·회현·대야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약속한 지역 시급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는 뜻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현대 새만금 9조 투자 현실화, 논공 생산 및 수매 안정, 부안 RE100 산단 구축을 위한 용지 변경과 국가계획 반영,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 확대 등 주민계 약속드린 과제들을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인 만큼,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안을 우선 발의하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점검해 가겠다"라며, "지역 속원 함께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와 정부 부처 협의에도 곧바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을 모시고, 섬기며, 성거에 협력선거로 함께해주신 김중회 후보님께도 감사드립니다"라며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라며 "지역 속원 함께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와 정부 부처 협의에도 곧바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등에서 전북 14개 시·군 전 지역 민주당 승리가 확정되며, 선거 과정에서 강조해온 '민주당 원팀'이 실현됐다.

박 당선인은 "전북도민과 김제·부안·대야·회현 주민들께서 만들어주신 민주당 원팀의 승리를 무거운 책임으로 받들겠다"라며 "전북의 100년 만의 기회를 반드시 성과로 만들고, 더 낮게 듣고 더 깊게 섬기며 더 부지런히 뛰어 결과로 증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김명욱 /장정철 기자

익산시,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강화

포용적 인구정책 추진

익산시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익산시는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를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 정비는 지역에 정착해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정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는 전입장려금과 열차운임비 지원 대상이 내국인으로 한정됐으나, 시는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규칙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입세대 전입장려금'은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거나 익산시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한다.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근로자와 학생에게 운임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적과 관계없이 익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깨끗한 축산농장' 17곳 신규 지정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2분기 '깨끗한 축산농장' 평가에서 지역 내 17개 농가가 새롭게 지정받아 총 282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농가의 자발적인 동참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축사 안팎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가축 사육 환경을 개선해 악취 발생을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축산농장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정 농가에 다양한 혜택(인센

티브)을 제공한다.

각종 축산 분야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해 농가들이 먼저 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이끌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사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축산환경e로움 시스템'에 가입한 뒤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농가가 자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

해리면 하련지구 정주 여건 개선... 기본계획 승인

고창군이 '해리면 하련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고창군은 해리 양돈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돼 5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양돈시설(3664㎡ 규모)을 철거하고, 해리 작은목욕탕(남·여 분리), 빨래방,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양돈시설 매입절차를 완료하고, 폐업을 완료했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고창군은 석면 조사 용역과 철거공사, 시계계획 수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2027년 착공 후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고창군 '해리면 하련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 <사진=고창군>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촌지역 내 객관적인 유휴성이 입증된 축사, 공장, 장기 방치 건축물 등의 환경 중점 관리 시설을 정비·철거하고, 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 서비스시설을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해리면

하련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이외에도 관내 환경중점관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재생 사업을 확대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고창다운'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예술회관, 19일 기획공연 개최

'전유진의 별빛 클래식' 공연

부안군은 부안군민을 위한 기획콘서트 '전유진의 별빛 클래식'을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가수 전유진과 클라무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로 클래식과 대중가요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클라무오케스트라의 뮤지컬 'Miss Saigon'을 시작으로 테너 민영욱의 '나의 꿈속에서'·지규 이순간, 소프라노 김아름의 '그리운 금강산'·'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가수 전유진의 '축제의 노래'·'초혼'·'주역 속으로'·'올레' 등 다양한 무대로 꾸며진다.

특히 깊은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 전유진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티켓 예매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부안군민에 한해 신분증 지참 후 부안예술회관 1층 사무실에서 선착순 300석을 현장 판매하며 잔여석은 인터넷 예매처인 티켓링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관람료는 부안군민 대상 5000원이며 국가유공자와 다자녀가정은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공연 관련 문의는 부안예술회관으로 하면 된다.

부안예술회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라며 "군민들께 따뜻한 감동과 특별한 추억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제3분기 여성회관 34개 과목 수강생 모집

김제시 여성회관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여성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경제력 향상 및 자아실현으로 여성의 행복을 추구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6년도 제3분기 여성회관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4개 과정 34개 과목으로, 취미·교양 분야에 스포츠댄스 등 15개 과목, 건강 분야에 요가 등 6개 과목, 인문·교양 분야에 기초영어 등 5개 과목, 야간 프로그램으로 난타 등 8개 과목이다.

김제시에 주소를 둔 여성은 누구나 신청 가능(남성생활요리·남성)하며 방문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수강료는 3개월에 15,000원이다. 이번에 모집된 수강생은 2026년 7월 1일부터 3개월간 교육이 진행된다.

김숙영 교육가족과장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배움에 뜻이 있는 지역 여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여성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전북 최고 수준 착한가격업소 지원

물가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전북 고창군이 군민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나섰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54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연간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인센티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업소당 100만원을 지급했다.

고창군은 국·도비 외에도 군비를 추가 투입해 업소당 연간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고 수준의 지원 규모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업소를 적극 지원하고 자발적인 가격 안정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고창=백종규 기자

현재 고창군 착한가격업소는 총 54개소로 외식업 41개소, 이미용업 12개소, 숙박업 1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또한 군은 2025년부터 업소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물품 지원 방식에서 고창사랑카드 충전 방식으로 인센티브 지급체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업소별 여건에 맞게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고창사랑카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가격, 위생·결격, 공공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매년 신규 및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다.

부안군 환경과, 오디 수확철 맞아 농가 일손 부족 해소 지원

부안군 환경과는 본격적인 오디 수확철을 맞아 농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환경과 직원 10여명은 동진면 증산리 소재 오디 재배농가를 방문해 오디 수확 작업을 지원하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힘을 보탤다.

이번 농촌 일손 돕기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오디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농가 관계자는 "수확 시기에 일손을 구하기 어려웠던데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도와준 덕분에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환경과 관계자는 "작은 도움이지만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직원들이 뜻을 모아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 청하면, 주민참여로 만든 아름다운 여름 풍경 선사

김제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일원에 만개한 접시꽃길에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여름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청하면 보건지소 인근 도로변을 따라 조성된 접시꽃길은 분홍빛 꽃송이가 즐비해 피어나 장관을 이루고 있다. 높게 자란 꽃대마다 활짝 핀 접시꽃은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청하면의 거리를 한층 화사하게 물들이고 있다.

특히 꽃길 인근에는 'cafe 청하'가 자리하고 있어 주민과 방문객들이 꽃길을 감상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접시꽃과 카페가 어우러진 풍경은 청하면만의 정겨운 매력을 더하며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주목받고 있다.

이 꽃길은 지난 2017년 연봉마을 최부일 이장의 주도로 조성된 이후 주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손길로 관리되고 있다. 신영호 청하면장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청하면의 거리 풍경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다"며 "꽃길과 'cafe 청하'가 어우러진 공간이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쉼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치매안심재난관리서비스 본격화

김제시는 김제시치매안심센터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연금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로, 독거 치매환자나 부부 치매가구 등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이용료는 전액 무료다.

관리 대상 재산은 현금, 지명채권, 주

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된다. 위탁된 재산은 개인별 계정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며, 예금 및 국공채 등 안정적인 방식으로 운용돼 원본 손실 위험을 최소화한다. 특히 제3자의 무단 인출이나 압류가 불가능해 어르신의 노후 자금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소중한 재산으로 안전하게 치료와 요양 서비스를 받으며 안심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사진=강호항공고등학교>

강호항공고 군특성화반, 충훈탑 환경정화

강호항공고등학교(교장 염택선) 군특성화반 학생 75명은 지난 4일 고창군 충훈탑을 찾아 환경정화 활동과 참배를 실시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공군·해군 항공정비 과정 학생들과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이 함께 참여해 충훈탑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묵념과 헌화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학생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염택선 교장은 "학생들이 나라사랑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과 예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정비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김제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청정하고 안전한 하천·계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해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6

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주요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및 계곡 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가설)건축물 △물건 적치 △불법 경작 등이다.

시는 해당 기간 내 불법 시설물을 스스로 철거하는 행위자에게는 불이익 조치를 최소화할 방침이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할 예정으로 다만, 불법 상행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이 지난 후에도 남아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행정처분 및 강제 철거를 실시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현서 부시장은 "깨끗한 하천을 만드는 것은 자치단체의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자진 철거 및 인식 전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관광서비스 강화 2(題)

문화관광해설·관광안내시설 개선

전북 고창군은 품격있는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화관광해설 운영개선과 관광안내시설 정비작업을 진행한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관광지별 해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해설 매뉴얼을 재정비한다.

관광지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반영한 표준 해설안을 마련하고 관광객 응대 요령 등을 보완해 보다 체계적이고 품격 있는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설 내용, 전달력, 친절도,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해설서비스 개선과 해설사 역량

강화 교육 등에 활용해 관광객 중심의 해설서비스가 이뤄진다.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안내시설 정비도 진행된다. 선운산 관광안내소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요 관광지 관광안내 표지판에 대한 신규 설치 및 교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안내지도도 전면 재정비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안내 배너를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문화관광 SNS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해 주요 관광지, 관광정책 및 축제·행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관광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광정보 접근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우리들의 무장' 정식 오픈

고창군이 '무장음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무장 복합문화센터'가 지난 1일 카페 '우리들의 무장'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카페 '우리들의 무장'은 기존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무장음성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해 고창군 대표 뷰맛집 카페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고창 땅콩을 활용한 '고창 피넛 크리미 라떼'와 '고창 군고구마를 활용한 '고창 군고구마 비스킷' 등을 선보이며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무장음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은 2016년 사업을 시작해 무장음성 일원에 총사업비 157억원을 투입해 관

광거점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했고 2025년 사업을 완료했다.

고창군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과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시설을 민간에 위탁했고, 운영 전 현장에서 무장면민들과 논의하고 소통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앞으로도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커피와 디저트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차별화된 먹거리와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우리들의 무장은 단순한 카페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관광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운영

오늘부터 8월 17일까지

부안군은 2026년 변산해수욕장 개장 전 관광객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조기 운영한다고 밝혔다.

변산 스토리센터 옆에 위치한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른 무더위에 맞춰 오는 5일부터 선제적

운영에 돌입한다.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오는 7월 3일 변산해수욕장 정기 개장 전부터 방문객들을 미리 맞아 8월 17일 해수욕장 폐장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11시 30분, 오후 1시~3시, 오후 3시 30분~5시까지 총 3타입으로 운영된다. 어린이 물놀이 시설 조기 운영은 관

내 주민과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나아가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과 타 해수욕장과 차별화된 홍보 효과 등 다각적인 성과를 거둘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 조기 운영을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보다 일찍 변산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남원시, '어르신 여름나기' 총력 안전점검 강화

503개 경로당·요양기관 59곳 점검 '취약노인 보호대책' 선제 대응 경로당 무더위쉼터 연장 운영

남원시는 본격적인 장마철과 여름철 폭염 시기를 앞두고 관내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총 503개소의 경로당을 비롯해 노인요양복지시설(1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36개소), 장기요양기관(31개소), 노인복지관(2개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3개소),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노인복지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별 특성과 여름철 기후 위험요인에 맞춘 맞춤형 점검과 예방 조치를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달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약 2개월간 '2026년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관내 노인요양복지시설, 재

가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총 59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대비 상태 △감염병 및 급식위생 관리 △소방·전기·가스 등 시설물 안전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5월 26일까지 자체 점검을 완료하고, 현재는 지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취약한 어르신 보호를 위해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23개 읍면동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3개소에 전파했다.

이번 대책은 △안전 확인 강화 △상황보고 체계 유지 △폭염·호우 대응수칙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5월부터 9월까지를 중점관리기간으로 지정해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어르신 등 취약계층 중심의 선제적 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로당 503개소는 폭염 및 폭우 집중기간인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기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해당 기간동안

은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09시~21시까지 개방해 무더위쉼터 기능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냉방기 사전점검 등도 함께 진행 중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3개소에서는 수행인력 교육을 비롯해 어르신 대상 폭염 대응 행동요령 및 건강수칙 안내, 비상연락망 점검, 후원물품 연계 등 다양한 보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 5,724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관리하고 있는 남원시 시니어클럽을 포함한 5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는 여름철 폭염 및 호우에 대비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실외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근무시간 조정과 휴식시간 확대, 폭염 안전물품(모자, 쿨토시, 생수 등)을 지원해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신속한 안전 조치를 통해 어르신들이 장마 및 폭염 속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누리시민 20만명 돌파 '생활인구도시 도약'

5월 한 달 1만3천여명 가입 추진체계 연계 사업 효과 '특독'

남원시가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해 인구 기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남원누리시민' 가입자가 20만 1,101명을 돌파했다.

이는 단순 관광이나 일회성 방문을 넘어 남원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외부 인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번 20만 명 돌파는 다양한 관광·홍보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5월 한 달 동안 총 1만 3,264명이 신규 가입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제96회 춘향제와 연계해 추진한 '남원누리시민 주간 여행경비 지원사업'과 최근 방영된 tvN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 리미티드 에디션'의 홍보 효과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남원시는 누리시민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혜택 강화를 위해 지역 내 누리시민 가맹점을 지속 확대해 현재 90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숙박·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누리시민 혜택을 제공해 남원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번 20만 명 돌파를 계기로 누리시민 혜택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관광·축제·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홍미선 기획예산과 과장은 "남원누리시민 20만 명 달성은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이자 남원의 생활인구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외국인 유학생 역사·문화 체험 지역 탐방 운영

완주군은 지난 3일 외국인 유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완주 지역 탐방 및 문화 체험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과정은 완주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우석대학교와 협력해 추진됐으며,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완주의 역사·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소양 송광사, 아원고택, 위봉산성 등 완주의 대표 문화·관광 자원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한복 체험과 지역 교류 과정 등 참여형 문화 체험도 함께 운영돼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유학생은 "완주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한국 생활에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천홍 우석대학교 교육발전지원센터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공동체 소속감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업·취업·정주 지원과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은지 교육정책과장은 "완주군은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 지역 활력 제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교류·협력 강화

성과공유회서 혁신사례 공유 전주·익산·전북개발공사 참여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이 최근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전주·익산·전북개발공사 참여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이 최근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전주·익산·전북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기업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경영 실천 우수사례와 인공지능(AI)·디지털 업무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공단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참석 기관들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참석 기관들은 각 기관별 운영 경험과 현안에 대한 다양한 조언과 제안을 공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희수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공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우리 공단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기관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소통의 장이었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사진=완주군>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국무조정실 공모 선정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 선정 외국·한국 청년 로컬콘텐츠 제작

외국인 청년과 한국 청년이 함께 완주의 숨은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콘텐츠로 기록하는 로컬 프로젝트가 완주군에서 추진된다.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는 외국인 청년과 지역 청년이 팀을 이뤄 완주의 관광·문화자원을 탐방하고 사진·영상·매거진 콘텐츠를 제작하는 참여형 사업 '어서와 완주는 처음이지?'가 지난 5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과 (재)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주관하는 '2026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지역 청년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청

년센터가 직접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 단위 공모사업으로, 청년 참여 확대와 지역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선정 사업은 '어서와 완주는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외국인 청년과 한국 청년이 함께 완주의 로컬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청년의 시선으로 지역 콘텐츠를 제작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다.

참여 청년들은 삼례문화예술촌, 전통양조장, 로컬푸드 직매장, 고산자연휴양림 등 완주의 다양한 지역 자원을 탐방하며 사진·영상·매거진 콘텐츠를 제작하고, 한국 청년과 외국인 청년이 팀을 구성해 협업하는 과정에서 문화 교류와 지역 이해를 함께 넓혀갈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또한, 제작된 콘텐츠는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청년층에 공유되며, 이중언어 매거진으로도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사업 종료 후에는 성과공유회와 전시를 통해 청년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지역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참여 경험 확대와 지역에 대한 이해·애착 형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형욱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청년의 시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과 연결되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해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석학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완료

국비·지방비 119억원 투입 하천 2.8km·교량 3곳 정비

완주군은 화산면 운곡리 일대에 위치한 지방하천 석학천에 대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을 최종 완료했다.

석학천은 하천 폭이 좁고 호안과 제방 등 하천 시설물이 노후화돼 집중호우 시마다 수해가 반복되어 온 지역이다.

이에 군은 3년간 국비 84억 원, 지방비 35억 원 등 총 119억 원을 투입해 하천 정비 2.8km, 교량 재가설 3개소 등 유실·붕괴된 제방을 확충하고 재축조하여 취약한 하천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했다.

더불어 군은 2024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장선천, 괴목동천, 성북천에 대한 재해복구사업도 올해 내 완료



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 전까지 주기적인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를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최병준 하천기반과장은 "이번 석학천 재해복구사업 완료를 계기로 진행 중인 다른 재해복구사업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재해가 반복되더라도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하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전주대와 특산물 미식관광 활성화 '성과'

대학생사업 1차 연도 마무리 산학관 협력모델 구축 기반 마련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추진한 '특성화지방대학 대학생사업' 1차 연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미식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은 지역 농업·관광 분야 현안 해결과 특화자원의 부가 가치 향상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One Food 기반 시제품 연구 개발(R&D) 강화 △XR 체험형 콘텐츠 개발 △지역 고교 연계 로코노미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운영위원회 운영 등 4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성과로는 남원 대표 축제와 연계한 상품 개발 및 관광 콘텐츠 기획·운영이 꼽힌다. 특화작목인 백향과(배선프루트)를 활용한 기능성 뷰티젤리 시제품 개발, XR 기반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남원 제일고등학교와 연계한 쿠킹클래스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관광 산업 연계 활용 가능성을 확대했다.

특히 백향과를 활용한 가공 시제품은 상품 완성도와 시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지역 축제와 연계한 시범 판매 운영을 통해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는 등 향후 상품화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남원시와 전주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교육기관·민간사업자 등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형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대학생사업 1차 연도 마무리 산학관 협력모델 구축 기반 마련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경영 실천 우수사례와 인공지능(AI)·디지털 업무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공단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참석 기관들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참석 기관들은 각 기관별 운영 경험과 현안에 대한 다양한 조언과 제안을 공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희수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공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우리 공단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기관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소통의 장이었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돌입

11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 3천여 사업체 온라인·방문 병행

순창군이 지역 산업구조와 경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에 근거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가지정통계조사로, 순창군이 매년 시행하는 사업체조사를 대체하는 전국 단위의 경제총조사이다. 순창군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전화·팩스 등 다양한 스마트 조사 방식도 병행한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온라인조사는 관내 사업체 가운데 약 10%를 우선 실시사업체로 지정해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조사에 참여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국가데이터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순창군 내 사업체 3천여 개소이며, 사업체명,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영업비용 등 공통항목 12개와 산업별 특성항목 26개 등 총 38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자료 처리와 분석 과정을 거쳐 2026년 12월 잠정 공표되며, 2027년 6월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지역산업구조 분석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조사 대상은 순창군 내 사업체 3천여 개소이며, 사업체명,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영업비용 등 공통항목 12개와 산업별 특성항목 26개 등 총 38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자료 처리와 분석 과정을 거쳐 2026년 12월 잠정 공표되며, 2027년 6월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지역산업구조 분석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 가족 참여형 윈데이 클래스 운영

발효·쿠킹·원예 등 16종 마련 인형극·샌드아트 체험도 진행

순창발효관광재단은 6월 한 달간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6월 윈데이 클래스'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발효를 비롯해 쿠킹, 아로마, 반려동물, 원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해 단순 관람을 넘어 직접 만들고 배우는 참여형 관광 콘텐츠로 운영될 예정이다.

6월 윈데이 클래스는 매주 토·일요일 운영되며 △교육인형극 △떡화반

만들기 △발효 콧감 샌드 만들기 △미니 발효피자 만들기 △아로마 큐브 발레기피제 △감정 아로마 향수 만들기 △반려동물 사육비 만들기 △미생물 곰팡이 촉촉밤 만들기 △미생물 숲 테라리움 △발효세라믹 화분 만들기 등 총 16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순창의 대표 자원인 발효를 주제로 한 '발효 콧감 샌드', '미니 발효 피자', '미생물 곰팡이 촉촉밤' 등은 발효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식음료 개선, 인성교육, 생활 안전을 주제로 한 교육인형극과 샌드아트 공연·체험도 함께 운영되어 어린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남원↔인천공항버스 확대 운행 15일 개시

남원시는 오는 15일부터 남원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를 기존 일 1회에서 일 2회로 증편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편은 오후 시간대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노선은 순천에서 출발해 남원을 거쳐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된다. 이로써 하루 총 2회 운행되는 공항버스는 시간은 상행선(남원 출발) △오전 01:40 △오후 13:10이며, 하행선(인천공항 출발)은 △오전 08:05 △오후 19:25로 운행된다. 그동안 저녁이나 야간 비행기를 타기 위해 새벽부터 서울로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각자의 여행 일정에 맞춘 선택의 폭도 한층 넓어졌다.

한편, 이번 증편은 남원시와 전북도, 운송업체(금호고속)가 긴밀히 협력해 추진됐다. 시는 운행 개시 후 탑승 현황과 시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향후 이용객 증가 추이에 따라 추가 운행 확대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임실군,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점검 완료

임실군은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온 관내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했다.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긴급상황 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설물로, 임실군은 원활한 주소 사용을 위해 주소정보시설물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임실군은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관내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총 22,228 개소(간판번호판 17,139개, 도로명판 4,289개, 기초번호판 571개, 사물주소판 220개, 주소정보안내판 9개)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스마트 KAIS"라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각 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위치의 적정성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손상된 시설물의 보수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계북면지사협, 독거 어르신께 미용 쿠폰 전달

장수군 계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재수)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다시 찾은 젊음,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 꽃다발장하러 가는 날' 이·미용 쿠폰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홀로 생활하며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에 노출되기 쉬운 독거 어르신들에게 외모를 가꾸는 즐거움과 삶의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지역 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쿠폰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위생관리는 물론, 사회적 관계 형성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수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보건소, 의료 취약계층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실시

진안군보건소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을 맞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최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건소는 의료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방문보건사업 담당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인력들은 관내 방문건강관리대상자들을 찾아가 맞춤형 폭염예방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이번 대책 기간에는 전주기상지청과의 카카오톡 소통방을 적극 활용하여 오는 9월까지 폭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안군보건소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온열질환 예방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4일 진안군 고원시장 일원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들에게 폭염 대비 안내문과 부채를 배부하며 온열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숲가꾸기 사업 본격 추진

25억 투입 1,127ha 규모 최군수 "미래세대 위한 건강한 산림 조성에 최선을"

장수군은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11월까지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2026년 숲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의 생물다양성을 개선하고 산불 등 산림재해를 예방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27ha 규모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숲가꾸기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별로는 조림목의 원활한 생육을 돕기 위한 풀베기 사업 600ha, 조림목의 성장을 저해하는 덩굴류 제거사업 30ha, 우량목 중심의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한 어린나무가꾸기 302ha, 산림밀도 조절과 우량목 생산 촉진을 위한 큰나무가꾸기 135ha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 내 연료물질을 줄이기 위한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 60ha를 중점 추진해 산림재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숲가꾸기 사업은 나무의 건강한 생장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것은 물론, 탄소흡수원 확충과 생태계 건강성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훈식 군수는 "숲가꾸기 사업은 단순한 산림관리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림관리를 통해 군민이 쾌적한 산림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장수, 문화·관광 프로그램 풍성

무주군, 김환태 문학관 특별전 개최

"우리, 딱지본 보러 갈까?" 12월 31일까지 진행

무주군이 오는 12월 31일까지 김환태문학관 특별전 "근대의 이야기책, 베스트셀러가 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근대 대표 소설책 딱지본 도서를 주제로 문학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심청전", "춘향전", "류종렬전" 등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일반 대중들에게 사랑받았던 딱지본 소설 도서 30여 권을 선보인 다.

최지향 무주김환태문학관 학예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웹툰과 웹소설이 있다면 약 100년 전 대중의 손에는 딱지본 소설이 있었다"라며

"달독달독한 책 표지가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딱지와 비슷해서 이름이 붙여진 딱지본은 작은 크기와 얇은 두께, 다양한 그림이 그려진 형태뿐만 아니라 한글로 쓰여 지식인은 물론, 노동자와 농민, 부녀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전시가 단순한 옛날 책 관람을 넘어 딱지본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과 당시 독자들의 마음에 공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무주 김환태문학관은 무주 출신의 비평문학자 김환태 선생의 생애와 업적, 작품과 유품들을 발굴·연구하고 그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설립됐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K-샤모니 마운틴 챌린지' 운영

블랙야크 앱 연계

장수군은 글로벌 산악 명소인 프랑스 샤모니를 모델로 추진 중인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의 핵심 브랜드 프로그램인 '2026 장수K-샤모니 마운틴 챌린지'를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력 지역생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장수군의 대표 산악자원인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일대를 하나의 거대한 아웃도어 무대로 재해석한 체험형 산악관광 콘텐츠다.

군은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블랙야크와 협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챌린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블랙야크 알파

인 클럽(BAC)'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장수군을 대표하는 명산과 주요 산악 거점 14개 인증지점을 방문해 GPS 및 사진 인증을 완료하면 된다.

인증지점은 백두대간 코스 8곳과 금남호남정맥 코스 6곳으로 구성됐다. 백두대간 코스는 스틱유산 서봉(장수덕유산) △구시봉(깃대봉) △영취산 △백운산 △광대치 △봉화산 △봉화산 철쭉단지(매봉) △사치재이며, 금남호남정맥 코스는 △장안산 △사두봉 △신무산 △팔공산 △천선대미 △삿갓봉이다.

완주주에게는 블랙야크에서 25,000 BAC코인을 제공하며, 장수군은 선착순 1,000명에게 완주 메달과 기념 양말을 증정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양파 농가 농자재 지원

총사업비 3억 1,250만원 투입 농가 경영 부담 완화

임실군이 원예특작 작목인 양파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지원을 나선다.

군은 총사업비 3억 1,250만원을 투입해 관내 양파 재배농가와 작목반을 대상으로 종자와 멀칭비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농환경 조성고 고품질 양파 생산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특히 종자와 멀칭비닐 지원을 통해 생산비 절감은 물론 재배 효율성을 높여 양파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사업이 농가의 생산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발전

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양파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 간식 부스 '눈길'

"무주 맛 좀 보실래요?"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가 4일 막을 올린 가운데 맛과 가격, 환경까지 모두 지킨 간식 부스(예제문화관 주차장)가 관람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총 10개 지역업체가 참여했으며 각 부스에서 식사와 분식, 빵, 음료 등 다양한 음식을 선보인다.

식사류로는 산골영화제 시그니처 메뉴가 된 '숙주와 삼겹살'부터 신선한 재료와 특제소스가 일품인 '소고기 불 초밥'과 '새우 불 초밥', 살얼을 육수가 시원한 '냉짬뽕' 등 60여 가지가 준비되고 있으며, 짜장과 매콤한 맛, 두 가지 중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국물 떡볶이'를 비롯해 '샐러드·팽초 김밥', 싱싱한 부추와 해물을 곁들인 '해물 부추전', 바사삭 튀김 감자와 치즈의 조화가 특별한 '체더치즈 감자튀김'도 맛볼 수 있다.

무주산 농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고소



하고 달콤한 맛, 건강하고 특별한 맛을 낸 디저트류도 다양하다. 무주산 블루베리 위에 팔과 인절미, 아몬드, 연유를 곁들인 '컵 빙수', '무주산 딸기 리테'를 맛볼 수 있으며 푸짐하고 정겨운 '옛날 팔빙수'도 더위 사방에 제격이다.

무주 천마로 만든 '소금빵', 무주산 사과와 천마가 들어간 '수제 쿠키', 무주 산마루가 주재료인 '머루 주스'와 '머루 슬러시', '천마 모닝빵 샌드위치', 천마

반죽에 사과와 블루베리 잼을 넣어 구운 '반디빵'도 별미다.

임정희 무주군정 태권문화과 문화정책팀장은 "무주산골영화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간식 부스"라며 "군민들이 직접 만들어 맛도 정성도 일품이고 가격까지 저렴한 한 끼 식사는 거뜬하게 챙길 수 있으니 꼭 한 번 둘러보시라"고 전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청 사격팀, ISSF 월드컵서 동메달

추가은 선수 동메달 획득

임실군청 사격팀 소속 추가은 선수가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26 국제사격연맹(ISSF) 월드컵 라이플·피스톨 대회 여자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무대에서 값진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독일 뮌헨 올림픽사격장에서 개최된 올해 두 번째 ISSF 월드컵 대회로, 세계 각국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추가은 선수는 여자 10m 공기권

총 예선에서 583점(19X)을 기록하며 출전선수 128명 가운데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이어 열린 결선에서는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220.2점을 기록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여자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대한민국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결선에 진출해 메달 획득에 성공하며 국제무대 경쟁력을 입증했다.

추가은 선수는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바 있으며, 꾸준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 세계무대에서 값진 결실을 맺게 됐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영농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총력

군민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진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과 야외활동 증가 시기를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 강화에 나섰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쯤쯤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대표 질환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내 감염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21일 울산광역시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5월 14일에는 전북 부안군에서도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진드기 활동

이 활발해지는 봄철부터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올해 3월 진안군에서도 쯤쯤가무시증 환자가 1명 발생하며 조기 발생 사례가 확인됐다.

군은 농작업과 텃밭 활동이 활발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와 농업인 단체 등 야외활동이 많은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 운영하고, 최근 5년간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발생한 마을을 대상으로 집중관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마을방송, 전광판,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예방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N장미축제, 먹거리·기부 홍보 효과 특출

'천하제빵' 팝업스토어 인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목표액 5천만원 조기 달성 성과

임실군이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 '2026 임실N장미축제'가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와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효과까지 더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축제 기간 운영된 '천하제빵 팝업스토어'는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며 축제의 대표 인기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화제의 방송 프로그램 MBN '천하제빵'과 임실군 대표 특산물인 '임실N치즈'를 접목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미식 경험을 선사하고, 임실만의 차별화된 먹거리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천하제빵' 최종경연에서 6위에 오른 김진서 파티시에가 임실 모짜렐라와 고다치즈를 활용해 개발한 '임실N치즈 부라타브레드' 나눔 행사를 진행해 큰 화제를 모았다.

군은 이와 함께 축제장 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관광객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이같은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일반기부는 물론 임실군 지정기부 2호 사업인 '임실'의 대표 굶나무 육성지원사업 참여가 크게 늘었다.

이날 5월 31일 목표 모금액 5,000만원을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6·25 미수습 전사자 신원 확인 나서

진안군 보건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미수습 6·25 전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집중 운영 기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전사자의 유해를 찾지 못한 친가 및 외가 8촌 이내 유가족이며,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사본, 전사통지서 사본, 병적증명서 중 한 가지 증명서류를 지참해 진안군 보건소 임상병리실이나 가까운 군 병원 등을 방문하면 된다.

이후 진행되는 유전자 시료 채취는 면봉으로 구강 내 세포를 긁어내는 방식으로, 통증 없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며, 유전자 분석 및 대조 작업에는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추후 전사자와 유가족의 유전자 일치로 전사자의 신원이 최종 확인될 경우, 정부 지원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발굴된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영여롭게 안장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이기자 순창군자원봉사센터장,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기탁

이기자 순창군자원봉사센터장이 4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이 센터장이 '제28회 친절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민간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 중 1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수상으로 받은 상금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이 센터장은 1983년 9월 대한적십자사 순창강천봉사회에 입회한 이후 2026년 6월 기준 42년간 총 7,1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취약계층 지원, 재난구호 활동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해왔으며, 적십자 봉사회 순창군협의회장 등을 역임한 뒤 현재는 순창군자원봉사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기자 순창군자원봉사센터장은 "적십자 봉사원으로 활동하며 만난 이웃들과 42년간 함께 해 준 봉사회원들, 배려해 준 가족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봉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며 "이번 기부가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주요양원, 효사랑가족요양병원과 나눔 활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주보훈요양원(원장 신재철)은 제71주년 현충일을 앞두고 4일 효사랑가족요양병원과 연계해 '원예치료 및 외플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3년부터 4회째 진행되는 행사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어르신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어르신 기본 건강 위한 구급약품, 파스 등 후원물품을 전달하였다. 효사랑가족요양병원의 자원봉사단체인 '효도리사업단'이 직접 준비한 개운죽 화분 만들기 프로그램 후 정성껏 구운 외플을 어르신께 나눠드렸다.

효사랑가족요양병원은 국가유공자 위탁 지정병원으로, 지역사회 보훈가족을 위한 실질적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고창 김병현 주무관, 전북 지방세 연찬회 '최우수'

지방세 체납징수해법 제시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출전

고창군 김병현 주무관(재무과)이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세 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6년 지방세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8일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열린 지방세 연찬회는 도·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각 시·군에서 제출한 총 14건의 연구과제 중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한 6건의 우수 과제 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고창군 김병현 주무관은 '지방세 체납징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회생·파산제도 대응방안연구'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도산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회생·파산 절차 내 지방세 채권 확보 방안과 현행 송달 시스템의 한계를 날카롭게 분석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이끌어 냈다.

특히 법원의 송달 체계 개선 및 관련 법률 명확화 등 즉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김병현 주무관은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참가할

/고창=백종규 기자



군산 금강미래체험관, 'Green 군산, 지구로운 6월' 운영

금강미래체험관은 환경의 날과 환경교육주간(6.5-6.11)을 맞아 6월을 '환경의 달'로 지정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Green 군산, 지구로운 6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산시민은 물론 관광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장, 학교, 지역아동센터, 시니어클럽 등 생활권 곳곳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스스로 실천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6월 6일 토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이성당 앞 구시청광장과 수송동 맞닿은 광장에서 환경 캠페인을 운영한다.

6월 18일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전기 절약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교육을 진행한다.

군산시니어클럽 교육장에서는 6월 중 5일간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니어와 함께하는 생활 속 환경실천 교육'을 진행한다.

/군산=지승길 기자

남원시보건소, 재가 장애인들과 나들이 행사

다채로운 문화 체험 제공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4일 평소 이동의 불편으로 외출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나들이 행사를 추진해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었던 장애인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소통하며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나들이에는 장애인과 보호자, 보건소 및 남원의료원 지원 인력 등 총 56명이 참여했다.

첫 여정은 국내 유일의 보석 전문 박물관인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시작했다. 오후에는 일제강점기 곡물 창고를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으로 이동해 역사와 현대 미술이 공존하는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휴식을 즐겼다.

/남원=김종원 기자



케이워터기술 용담댐사업소, 완주서 재능기부

케이워터기술 용담댐사업소가 안전사고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완주군 고산면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케이워터기술은 최근 전문 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고산면의 사례 관리 대상 어르신 부부 가정을 직접 찾아가 노후화된 환풍기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오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던 콘센트를 교체했다.

또한 정리가 되지 않은 전선을 안전하게 정비하고 일부 노후 전선을 교체하여 화재 예방과 전기 안전성을 높이는 데 힘썼다.

양순필 케이워터기술 용담댐사업소장은 "작은 정비 작업이지만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과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군산 치매안심센터, 대한적십자사와 김치 나눔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는 4일 대한적십자사 군산시협의회와 연계해 관내 치매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기억나눔 김치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치매 증상으로 인해 일상 속 영양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치매환자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센터 직원과 대한적십자사

군산시협의회 회원 등 20여 명이 정성껏 담근 열무김치와 레토르트 삼계탕, 구운빵, 손소독제 등 지원 물품을 준비해 치매환자 가구 50곳을 직접 방문·전달했다.

특히 봉사자들은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치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안부를 확인하고 따뜻한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 정서적 지지 활동도 함께 펼쳐 의미를 더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남원 금동, 민관협력으로 취약계층에 희망 바람 선물

남원시 금동의 밀착형 '소통행정'과 지역 업체의 따뜻한 기부 활동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며 현장 중심 복지행정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금동은 지난달 27일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생활상태를 점검하던 중 선종기 고장으로 혹서기 운영질환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 주민의 안타까운 사연을 발견했다.

마침, 이 시기에 맞춰 삼성스토어 공설시장점(대표 김경찬)에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선종기 10대를 금동에 기탁한 상태였으며, 금동은 지체 없이 해당 물품을 폭염 취약계층 가구에 신속하게 연계 지원했다.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상황을 빠르게 해결한 것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우리 함께 해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회용컵, 빨대 no!



텀블러, 다회용기 사용



비닐봉투 no! 장바구니 ok!



세탁비닐 no!



일회용 수자, 포크 no!

〈一事一言〉



뒀 올리는 '천호성 호', 전북 교육개혁의 담대한 여정을 바라보며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6·3 지방선거의 뜨거운 열기를 뒤로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천호성 당선인이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전북도민의 뜨거운 열정이 모여 일궈낸 값진 승리다. 새로운 전북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게 된 천 당선인의 당선은 진심으로 축하한다. "무너진 교육 신뢰를 다시 세우고, 아이들이 행복한 전북 교육을 만들겠다"는 그의 준엄한 선언은 이제 단순한 약속을 넘어 도민들의 가슴 속에 거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은 늘 가슴 벅차지만, 천 당선인의 앞에 놓인 과제는 결코 녹록치 않다. 교육 현장은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소통 단절과 무너진 공교육 신뢰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그렇기에 도민들이 천 당선인에게 보낸 지지는 단순히 한 사람의 권력을 세워준 것이 아니라, 전북 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혁파하고 교실에 새 숨을 불어넣어 달라는 '준엄한 개혁의 명령'이다. 천 당선인은 도민들이 품은 이 뜨거운 개혁의 바람을 동력 삼아, 전북 교육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할 담대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성공적인 개혁을 향한 첫걸음은 역설적이게도 선거 기간 갈라졌던 마음들을 한데 모으는 '통합의 기술'에서 출발한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었으며, 보수와 중도 진영 후보들과의 사이에서 날 선 공방이 오가며 교육계 안팎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금,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잣대로 교실을 나누는 구태는 단호히 끝내야 한다. 천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보수·중도 진영의 교육계 인사들과 학부모들 역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북 교육의 소중한 동반자들이다.

천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과감히 씻어내고, 반대편의 목소리까지 따뜻하게 껴안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경쟁 후보들이 제시했던 훌륭한 공약과 비전을 정책에 열린 마음으로 반영하고, 교육청의 문턱을 낮춰 모두와 소통하는 '탕평의 행정'을 펼쳐보일 때 무너진 교육 신뢰는 비로소 단단한 초석을 얻게 될 것이다.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 된 힘을 이끌어내는 통합의 기술이야말로,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개혁'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통합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올릴 개혁의 탑은 천 당선인의 검증된 '전문성'과 이를 실현할 '유능한 행정력'으로 완성된다. 그는 '평균교사 15년, 교대 교수 20년'이라는 흔치 않은 이력을 지닌 인물이다. 초·중·고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맘 흘려 호흡했고, 대학 강단에서 예비 교사들을 길러내며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꿰뚫고 있는 '자타공인 35년 교육 전문가'다. 이 독보적인 현장 경험은 관료주의에 물든 교육청 행정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현장에서 즉각 작동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생산해 낼 것이라는 큰 기대를 품게 한다.

는 정책들을 생산해 낼 것이라는 큰 기대를 품게 한다.

이제 천 당선인은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혜와 현장 감각이 단순한 학문적 이론이 아닌, 거대 행정 조직을 이끄는 실질적인 행정력과 추진력으로 증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학부모들이 가장 염원하는 기초학력 보장, 지역 소멸에 따른 농어촌 학교 활성화, 그리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안전망 구축 등 산적한 현안들을 과감한 행정적 결단과 세련된 조율 능력으로 돌파해 내야 한다. 책상 위에서 나오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교실의 공기를 바꾸는 실천적 개혁, 그것이 바로 도민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전문가 교육감'의 진면목이다.

전북 교육은 이제 과거의 갈등과 정체를 벗어던지고, 천호성 교육감 당선인과 함께 새로운 개혁의 뜻을 올렸다. 당선의 기쁨을 넘어, 이제는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전진할 시간이다. 상처를 치유하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교실의 신뢰를 복원하고, 현장 밀착형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전북이 대한민국 공교육 혁신의 자랑스러운 이정표가 되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염원하고 응원한다.

사설

선거는 끝났지만 과제는 이제 시작이다

6·3 지방선거의 막이 내렸다. 승자는 환호하고 패자는 아쉬움을 삼키겠지만, 선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에 있다. 민주주의는 투표함이 닫히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전북 정치의 민낯도 적지 않게 드러났다. 정책 경쟁은 실종된 채 정당 간 판과 조직 동원에 의존하는 선거가 반복됐고, 각종 의혹과 네거티브 공방은 도민들에게 깊은 괴로움을 안겼다. 정작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산업 경쟁력 확보, 국립의전원 설립과 같은 핵심 현안은 선거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

특히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가 지속되는 현실은 다시 한번 숙제로 남았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정치 구조는 필연적으로 오만을 낳고, 오만

한 권력은 결국 도민의 목소리보다 조직의 논리를 앞세우게 된다.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한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정치 생태계에서 비롯된다.

당선자들은 선거 승리를 만취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도민이 준 표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며, 권력이 아니라 봉사의 명령이다. 패자 또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

전북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정치권이 선거의 승패에만 머문다면 전북의 미래는 달라질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실력이고, 정당 충성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책임 정치다. 선거는 끝났지만 전북의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도민은 이미 선택을 마쳤고, 이제 정체가 답할 차례다.

독자투고

어르신 교통안전, 배려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 인구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역시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는 한 번의 사고가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접하다 보면 안타까운 순간이 많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르신이 신호가 바뀌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거나, 차량 접근 속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신체 반응속도와 시야 확보 능력이 저하되면서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배려운전이 중요하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기다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보호구역이나 전동시차 주변, 병원 인근 도로에서는 서행 운전을 생활화 해야 한다. 단 몇 초의 양보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말고, 가까운 거리라도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야간 외출시에는 밝은 색 옷이나 야광 반사재를 착용하면 운전자의 시야에 잘 띄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이나 이어폰 착용은 주변 차량 소리를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 취약지역 시설 개선과 보호구역 내 단속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과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교통안전은 경찰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다. 운전자와 보행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때 비로소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 편안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배려와 양보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경장 허승훈

오늘의시

낙타 / 신경림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세상사 물으면 집짓,
아무 것도 못 본 체
손 저어 대답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누군가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장 가없는 사람 하나 끌라
길동무 되어서.

시인 약력 : 1936년 충북 충주 출생. 동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55년 '낮달', '갈대', '석상' 등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이후 '원격지', '산음기행', '시제', '농무' 등의 시를 발표했고 시학 해설서인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를 출간하며 작고한 시인들과 생존 시인들을 만나기도 했다. 1973년 만해문학상, 1981년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했다.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8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010-5242-38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당신의 하루, 전북타임스가 함께 시작 합니다

국가유산 김제 벽골제 ‘힐링 관광지’로 재탄생

도시의 경쟁력은 문화와 관광에서 비롯된다. 김제시는 천 년의 물길을 품은 국가유산 벽골제를 전시·체험·자연이 어우러진 힐링 관광지로 재탄생시키며 전북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연간 약 18만 명(2025년 기준)이 찾는 벽골제는 단순한 역사유적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일상 속에서 문화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힐링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역사와 현재가 만나는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특별한 경험을 누린다. (편집자주)



전시·체험·자연 어우러진 힐링 명소로 ‘인기’

국가유산 “김제 벽골제”
벽골제는 삼국시대에 조성된 토제 제방으로, 모약산을 수원으로 삼아 서부 평야에 물을 공급하던 농업유산이다. 현재 약 2.5km의 제방이 현존하며 국가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2018~2023년 진행된 고고학 발굴을 통해 그간 미확인되었던 유통거와 수여거의 위치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문헌에 기록된 ‘5거문(五渠門-수여거, 장생거, 중심거, 경장거, 유통거)’이 실재했다는 점이 입증됐으며, 이는 벽골제 총 제방 길이가 약 3.8km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국가유산 벽골제의 학술조사와 정비 사업을 통해 그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고,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계획이다.

벽골제에서 만들어가는 추억, “성공적”
벽골제는 단순히 역사적 가치만 지닌 것이 아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4개의 전시관(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벽천미술관, 아리랑문학관, 농경사주제관), 계절마다 다른 풍경은 관광객들에게 깊은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한다.
특히 푸른 잔디가 깔려있는 요즘 가족·연인·학생들에게 힐링 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일상 속 산책과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관광지 내 카페에서 판매하는 라면·김밥·샌드위치 위에서 즐기면 어머니들에게 어린 시절의 동심을, 아이들에게 소풍 같은 기쁨을 선사한다. 인근 도시에서 방문한 가족은 “아이들과 함께 민속놀이를 즐기며 역사까지 배울 수 있어 뜻깊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벽골제 풍경도 너무 좋았다.”라고 말했다. 김제 시내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관광지가 피크닉 명소가 될지 누가 알았겠는가?

오감이 즐거운 이곳, 체험·전시·먹거리를 한 곳에서 즐기는 “벽골제 관광지”

민속놀이 체험마당에서는 투호, 그네타기 등 다양한 놀이와 함께 전통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한복 체험, 명인학당, 짚풀공예, 목공예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1만 2천여 명이 체험에 참여했다.
박물관에서는 현재 “갈무리-삶을 담고, 기억을 잇다”라는 주제로 기획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7월까지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김제 지역의 문화와 벽골제의 가치를 알리는 문화강좌를 개최한다. 27일에는 장현근 작가의 “동진강유역 수리시설의 역사성”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6월에는 천득염 교수의 “조선시대 지방의 관아건축”이, 7월에는 김중엽 교수의 “김제의 마한·백제 문화탐구”가 개최될 예정이다.
주제관에서는 농경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농사에 대한 놀이 중심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벽골제 관광지 내에는 음식점 3곳과 카페 2곳이 있어 체험과 전시 관람 후 맛있는 식사와 음료까지 즐길 수 있다. 이처럼 벽골제 관광지는 전통놀이, 농경문화 체험, 다채로운 전시 그리고 현장에서 즐기는 먹거리를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종합 세트다.

시대를 넘어 공존하는 역사교육의 장, “우리의 독립은 현재진행형이다.”
아리랑문학관은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이 지닌 역사적·문화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설립됐다. 전시실에는 원고지 2만 매에 달하는 육필 원고와 집필 당시 사용했던 필기구를 비롯해 106종 360여 점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문학관 관람을 마친 뒤 소설의 배경이 된 아리랑문학마을을 함께 방문하면 당시 작가의 감정과 해당 작품의 깊이를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아리랑문학마을은 일제수탈관, 하얼빈역, 근대수탈기관, 내촌·외리 가옥 등이 조성되어 있는 역사교육 공간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탬프 투어, 근대 청년학생 복식체험, 독립자 미니블록 조립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관광객은 직접 체험을 통해 “우리의 독립은 현재진행형이다.”라는 메시지를 되새길 수 있다. 문학마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교육의 거점으로서 지속적으로 역사교육을 고취시키고 있다.

벽골제 관광지를 방문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왜?
지난해 10월부터 입장료가 무료화되면서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개인부터 단체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하고 있다.
어린이는 민속놀이와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 청소년은 전시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성인은 먹거리와 휴식을 누린다. 최근 1천여 본의 꽃을 식재해 계절감 있는 경관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전 세대가 즐겨 찾는 복합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를 제공하며 전 세대가 즐겨 찾는 복합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벽골제, 국가유산에서 글로벌 힐링 명소로
시는 국가유산 벽골제와 이를 선양하고자 조성된 벽골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쫓기·전통혼례 등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농경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체험용 자전거를 추가 확보해 관광객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보수와 예초 작업을 통해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벽골제 아리랑사업소 대표 SNS를 통해 벽골제 관광지

의 매력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벽골제 관광지를 전북 대표 힐링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시설 개선, 홍보전략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김제 벽골제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농업유산이자 국가유산으로, 역사와 자연, 그리고 체험과 휴식이 어우러진 글로벌 힐링 명소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벽골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국가유산”이라며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서 세계적인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티에프메디칼 | 주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안전에 일상을 더하다